

2. 마을의 역사

1630년경에 오씨(吳氏)라는 선비가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봉수대가 있었다 하여 봉수(烽燧)라 하였다. 조선 때는 평해군(平海郡) 근북면(近北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烽山里)에 속하였다. 항곡과 추난계의 2개 자연 마을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86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봉수대(烽燧臺)

봉산리 마을 뒷산 봉우리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봉수지로 ‘표산봉수대(表山烽燧臺)’라고 부른다. 표산봉수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조성했으며 구릉의 정상부에 평지작업을 하고 타원형 토축 기반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방형의 석축 연대를 조성했다. 현재 남아있는 봉수대의 규모는 하단부 29.6m, 너비 21.6m, 높이 2m이다. 표산봉수대는 울진지역에 잔존하는 다른 봉수대에 비해 기반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⁴

제8절 봉산2리(峰山二里)[속명 : 갈마(歇馬)]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동해(東海)가 있고, 서쪽은 마을 뒷산인 갈마등(嶺)을 넘어 황보2리가 있으며, 남쪽은 구산1리(邱山一里)와 인접(隣接)하고, 해안(海岸)의 암벽(岩壁)이 절경(絶景)을 이루고 있다. 북쪽은 봉산1리(峰山一里)와 연접(連接)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2014년도에 새로 건

4. 울진군·안동대학교박물관, 『울진군 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2006

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620년경 경주 최씨(慶州崔氏)가 처음 마을을 개척할 때 마을 뒷산의 모양이 말(馬)과 같다 하여 갈마(歇馬)라 하였다고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성면 봉산리(峰山里)에 편입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64세대가 거주하며 안동 권씨(安東權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근안 탁씨(近安卓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갈마봉(歇馬峯)

산(山)의 모양이 말(馬)과 같다 하여 갈마봉(歇馬峯)이라 한다.

제9절 사동리(沙銅里 : 1·2·3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東海)와 접(接)하였고, 서쪽은 마악산(馬岳山)을 경계로 삼산리(三山里)가 있으며, 남쪽은 도지고개를 지나 척산3리와 기성리가 있다. 북쪽은 흘리고개와 진불백사장(白沙場)을 경계로 망양1리가 있다. 사동리는 상사동(上沙銅), 하사동(下沙銅), 주담(周潭)의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사동(上沙銅)에는 본 마을 외에 장밭골, 돌담 마을이 있고, 하사동(下沙銅)은 세천(細川)을 경계로 남쪽 마을이 염전마, 북쪽 마을이 장장골이다. 사동1리 마을회관은 2005년에, 사동2리는 2003년, 사동3리는 2003년에 건립되어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에 사동보건진료소가 개소하였다.